야무진 꿈
—어떤 국무회의—

분명히,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가져다 줄 브라질 UNCED회의가 이제 앞으로 5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도, 정부의 높은 분들은 차기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답답하고 한심해서 하던 일 팽개치고, 마침 창으로 쏟아져 들어 오는 봄볕에 잠을 청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야무진 꿈인지? 개꿈인지는 모르겠으나 꿈은 이러했다.

꿈의 무대는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 일본 같기도 하고, 유럽의 어느 복지국가 같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나라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상공부장관 : 아까 말씀데로 요즘 우리 기업의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고비만 넘길 수 있게 한 6개월 동안만 환경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6개월만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 그럼, 6개월 동안 오염 배출을 눈 감아달라는 얘깁니까?

상공부장관 : 그렇다고 뭐 오염을 일부로 배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제가 하도 엄격해서 제한 생산을 하다보니, 수출물량을 납기에 생산할 수 없어,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일단 모아 두었다가 6개월 후에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 :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개월 후에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 6개월 후에도 계속 나올 오염물질과 보관해 둔 오염물질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면 무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 그 언젠가 한국에서 물장사로 돈 번 어느 기업이 식수원인 강을 페놀로 오염시켰던 아이러니컬한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오염물질 처리 소각로 하나가 고장 났었는데도 생산작업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 데서 비롯된 사고 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절대 반대 합니다.

상공부장관 : 물론 잘 압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딱 한 번만 그것도 6개월만 봐 주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의 이 고비를 못 넘기면, 앞으로의 수출은 물론 1백여곳의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래야 국민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대 통 령 :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국민이 살 수 있다뇨? 그건 30년 전의 논리로 요즘과 같은 환경보호 우선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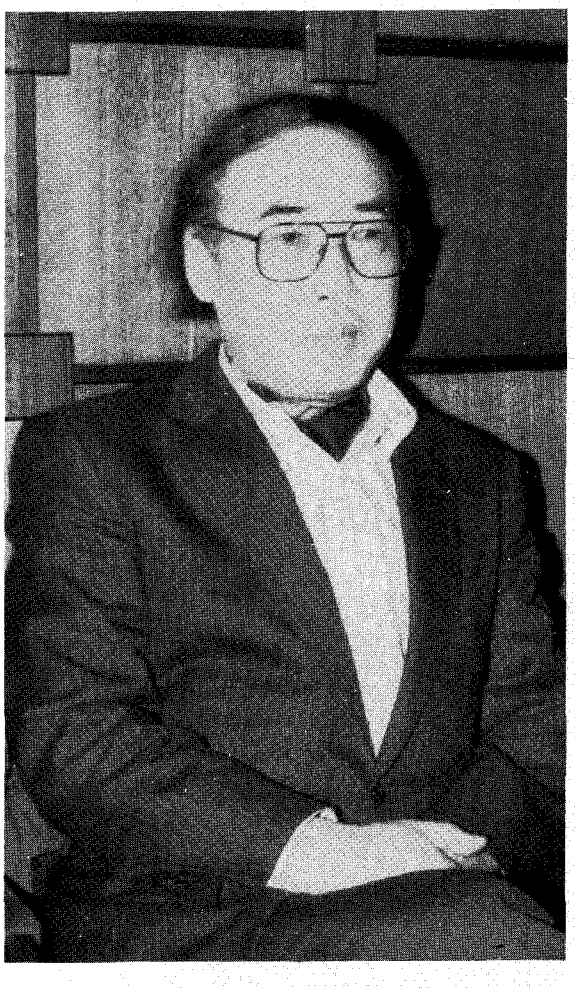
기자들이 들을까 겁납니다.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은 환경보호 뿐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경제 이전에 우선 국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 후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는 것 입니다.

상공부장관께서는 방금 하신 말씀을 취소 하세요. 그리고 제안하신 규제 완화건은 저도 반대합니다. 다른 장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위원 모두들 반대를 표명—

상공부장관 : 하도 다급해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대 통 령 : 그리고 문교부장관께서도 무슨 제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교부장관 : 저 역시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대학입시 부터 선택 과목 중에서 제2외국어 한 과목을 빼고, 환경문제 과목을 대신 넣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연구해 보았으나 그게 좀 난처합니다.

대 통 령 : 난처하다니요?

문교부장관 : 뺄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은 일본어인데,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려 하고, 또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짢아 하는 것 같습니다.

대 통 령 : 아니, 장관은 일본 정부의 장관 입니까? 일본이 언짢아 한다고 해서 난처 하다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과 대학입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다가 대학입시를 일어로 치루자고 하겠오! 긴 말 하지 마시고, 뺄 수 있는 과목이 일어라면 일어를 빼고, 환경문제 과목을 넣으세요.

문화부장관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환경문제 입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에 환경문제 과목을 넣으려면,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넣어야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 통 령 : 필수과목으로요?

문화부장관 : 그렇습니다. 그래야 국민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 까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러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깊어져 환경보호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 통 령 : 지금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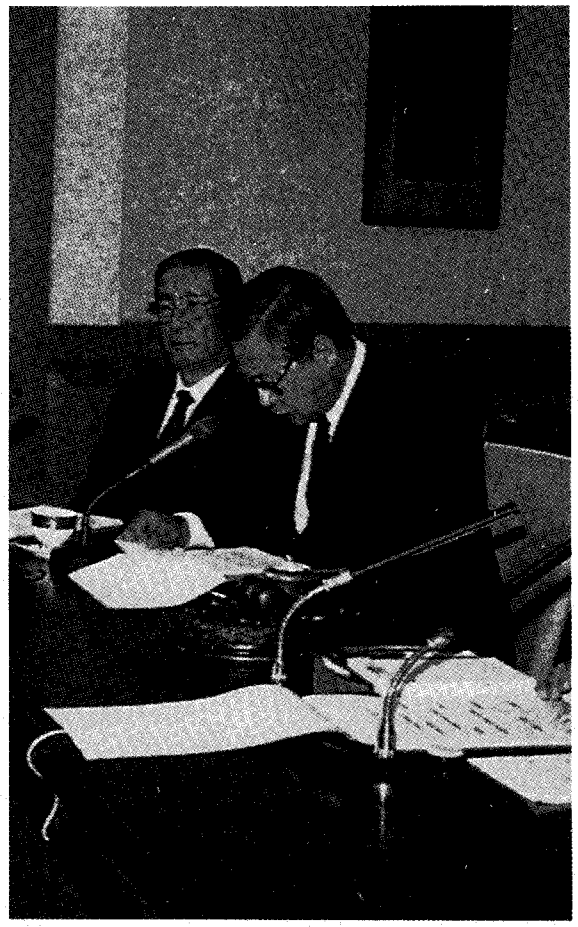
문화부장관 :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교양과목으로 배워서는 그 뿌리를 튼튼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필수과목으로 넣으면, 전문가 이상으로 공부하게 되고 또 그래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더 인식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국민이 살 수 있다뇨? 그건 30년 전의 논리로 요즘과 같은 환경보호 우선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국민이 살 수 있는 길은 환경보호 뿐이라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경제 이전에 우선 국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 후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르는 것 입니다.



체력은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서 얻어지는 건강한 육체의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思考)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의 건강한 육체라는것도 팔, 다리가 튼튼한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대 통 령 : 그래요? 이점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교부장관 :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문화부장관의 제안이 옳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환경문제를 대학의 입시과목으로 넣을 바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 좋겠다는 논의를 환경부장관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 통 령 : 그렇다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보죠.

환경부장관 : 환경문제는 이제 단순히 생태계나 물리, 화학적인측면의문제가아니게되었습니다.

환경문제는 아까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국가 존립의 기본 대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형성하는 1차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국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토란 무엇입니까? 땅과 대기 그리고 그 땅에 흐르는 강 등 즉, 환경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란 국가보호로 국가보호를 교양이나 지식 정도로 다룬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환경보호시대에서는 전근대적인 시대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벌써 대학입시에 환경문제를 필수과목으로 넣었어야 했습니다.

보사부장관 : 옳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후손들의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서도 마땅히 환경문제는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상공부장관 : 이웃 일본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도 그 나라의 환경이 건강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때, 일본은 공해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오염되어서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와 국민이 합심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환경보호를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아야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즉, 질 좋은 공업용수의 확보가 오늘의 일본을 만든 것입니다.

대 통 령 : (웃으면서)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까는 왜? 환경대책 시한부 유보를 제안하셨습

니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국무위원 일동, 찬성—

대 통 령 : 그럼, 또 어떤 분이 제안하실 안건이 있습니까?

체육부장관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한심국에서 개최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다음 올림픽 개최국에 대한 회의가 바보세레나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데, 그걸 우리가 개최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침, 어제 국제올림픽 조직위원장인 사리마다가 전화를 해 왔는데, 우리가 희망만 한다면 100% 밀어 준다고 합니다.

문화부장관 : 그 사람, 또 지난번에 탄 상금 생각이 난 것이 아닙니까?

—일동 웃음—

보사부장관 :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때 너무 많이 받은 상금에 대한 보답인지는 모르겠습니만…

문화부장관 : 한마디로 반대 합니다.

그래 올림픽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조금 규모가 큰 국제 체육경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체육부장관 : 체력이 국력이라는 표어도 있습니다. 제 장관방 벽에도, 우리 집 화장실 벽에도 그렇게 크게 써 붙여 놓았습니다.

환경부장관 : 체력이 국력이라? 그거 좋은 표어인데, 그 국력을 치탱해 주는 체력이라는 것이 공 잘 차는 튼튼한 다리나, 권투 잘 하는 튼튼한 팔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체력은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서 얻어지는 건강한 육체의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思考)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의 건강한 육체라는것도 팔, 다리가 튼튼한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난 올림픽 유치하는 것 반대 합니다.

농수산부장관 : 저도 반대 합니다. 또 올림픽을 치룬다고 해서, 바쁜 농번기에 축제 분위기를 내면, 농민들이 구경갈 수도 없고…….

법무부장관 : 나도 반대합니다. 올림픽을 치루면 세계 각국에서 구경꾼이 올텐데 그 속에 섞여 범죄자들도 옵니다. 그 꼴 못 봅니다. 이제 겨우 환경보호로 사회가 안정되었는데, 왜? 범죄자들을 불러 오염시킵니까?

대 통 령 : 좋은 지적들 해 주셨어요. 나도 반대 합니다. 농번기에 구경 할 수 없는 농민이나 또 구경군에 섞여 올 외국의 범죄자들 때문이 아니라, 아까 문화부장관께서 말씀 하셨듯이 올림픽이라는 것은 좀 규모가 큰 체육행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체육대회를 환경보호로 바쁜 이 시기에 또 치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미개했을 때는 외국 사람을 불러 모으는 수단으로 그리고 조금 여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폼으로 올림픽을 치뤘지만, 지금이 그때 입니까?

그때야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골치 아픈 나라 일에는 관심 두지 말라는 뜻에서 운동 갱기(경기)만 열심히 부추켜 …… 그때 스포츠 신문만도 몇 가지 있었죠?

나중에 나라 돌아가는 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지하철 신문이라고 비아냥댔죠?

하여간 이제는 스포츠는 개인 취미로 하는 것으로 끝내고 정부에서 그걸 국력을 기우려 부추킬 생각은 없어요.

환경부장관 :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 차제에 체육부를 없애고 그 기구와 인력을 환경보호 쪽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환경부 산하에 자연보호청, 대기보호청, 수질보호청 등으로 말입니다.

법무부장관 :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골프장도 재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부장관 : 저도 법무부장관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특히 골프장 문제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농민들이 골프장에 뿌려지는 각종 살충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농사에 비료나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수입잔디 때문에 여전히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충이 살충제에 면역이 생겨 더 강한 살충제를 더 많이 뿌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바로 그 살충제가 지하수를 통해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골프장을 폐쇄하고 골프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국토가 넓은 미국이나 골프를 쳐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웃 일본에나 가서 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 지난번 국무위원회 석상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골프가 우리나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방금 농수산부장관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이제 강에는 처리되지 않은 공장폐수는 물론, 생활하수도 유입되지 않아 그 먼 옛날과 같이 강물을 그대로 마셔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뿌려지는 살충제 때문에 우리의 강물이 다시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부장관 : 그래요. 최근 우리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강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골프장으로 나왔습니다.

대 통 령 : 잘 알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나 역시 오래 전 부터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왔어요.

우선 그 옛날에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 핸디캡을 줄이려고 골프라는〈핸디〉줄여 나가는 경기에 열심히 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를 더 맑게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나무를 심어야 하겠는데, 이제는 웬만한 곳에 나무가 가득 들어서서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나무를 심을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골프장에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국무위원 일동 대 찬성을 표시—

대 통 령 : 어때요? 체육부장관! 이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체육부의 해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체육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과 국회를 납득시킬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보세요.

체육부장관 : 그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반대는 커녕 대찬성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학교에 다니는 우리 집 녀석이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아버지가 그 옛날에나 필요했던 부처의 장관이라고 놀린다고 해서 사표를 낼까 하던 중입니다.

환경부장관 : 그럼, 잘 됐네요.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연보호청 등으로 출발하면 떳떳해 지겠네요.

—국무위원 일동 웃음—

대 통 령 :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결 합시다.

그 언제였던가요? 1992년이였던가요? 브라질에서 세계의 정상들과 환경문제 전문가 3만명이 모여, UNCED회의를 열었던 때를 기억 하시죠?

그때 환경오염 강국이었던 한국이 환경보호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또 환경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었던 것이 기억 납니다.

그러니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환경보호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밀어 나갑시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후손으로 부터 잠시 빌린 것 입니다. 그 임대인이 주인에게 물어 보지 않고 당장 우리가 살기에 편하고 좋게 파괴하고 오염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자—그럼 오늘의 국무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 꿈에서 언뜻 본 카렌다에는 서기 2020년이라는 년도가 찍혀 있었던 것 같고, 회의의 대화는 우리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정확한 년도와 회의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개꿈에 가까운 야무진 꿈인지, 一場春夢의 개꿈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筆者 : 本會顧問／UNEP 글로벌 500委員〉